

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2022. 6.

※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 목 차 ▶

요 약

1.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 / 1

가. 경기 상황에 민감한 신규 대졸자 수 / 1

나.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
10년내 최저치 기록 / 2

다. 신규 대졸자 가운데 유휴인력 증가세 / 4

2. 시사점 / 5

< 요약 >

1.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

가. 경기 상황에 민감한 신규 대졸자 수

- ▶ 경기순환기 상 수축국면에 접어든 2018년 신규 대졸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2020~2021년 신규 대졸자 수 대폭 감소
 - * '20년과 '21년 신규 대졸자 수는 최근 10년 평균 신규 대졸자 수(29.8만명)의 약 80% 수준에 그침.

나.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치 기록

- ▶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신규 대졸 취업자 ÷ 신규 대졸자)은 37.1%로 최근 10년(2013~2022) 내 가장 낮은 수치 기록
 - ※ '20년처럼 고용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층은 졸업년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3~4년이 지날 때까지 임금 손실을 보거나 대기업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Scarring effect)을 경험(한국은행)

다. 신규 대졸자 가운데 유휴인력 증가세

- ▶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덮친 2020년 신규 대졸자의 비경제활동률은 41.4%로 최근 10년(2013~2022) 내 가장 높은 수치 기록

2. 시사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대졸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코로나19 상흔효과를 최소화해야 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로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야 함.
 - ▶ (경기 활성화 및 코로나19 상흔효과 최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기 활성화 도모.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가 상흔효과 등의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원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제도 개선 필요
 - ▶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및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강화. 기업이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필요

1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한 졸업연도를 사용하여 당해 연도에 새로 대학 (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을 졸업하는 사람을 의미.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각년도 3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3월은 각 대학의 상반기 졸업이 끝나는 시점)

가 경기 상황에 민감한 신규 대졸자 수

○ 최근 10년(2013~2022)간 신규 대졸자 수는 대체로 30만명 내외 수준(10년 평균 29.8만명)

< 표 1. 신규 대졸자 추이(단위: 만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 대졸자 수	29.9	35.2	33.5	33.7	34.0	27.9	28.5	24.3	24.1	2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신규 대졸자 수 변동은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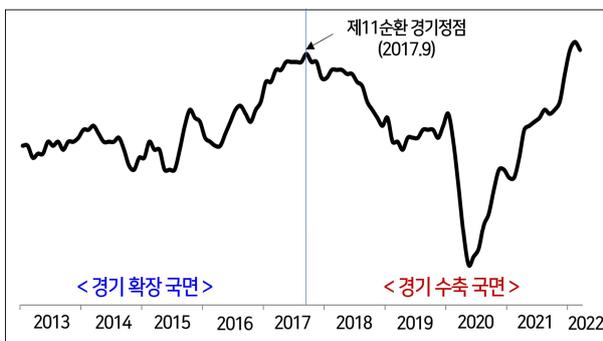
- 경기순환기 상 수축국면에 접어든 2018년 신규 대졸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2020~2021년 신규 대졸자 수 대폭 감소*

* '20년과 '21년 신규 대졸자 수는 최근 10년 평균 신규 대졸자 수(29.8만명)의 약 80% 수준에 그침.

⇒ 신규 대졸자 수 급감은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학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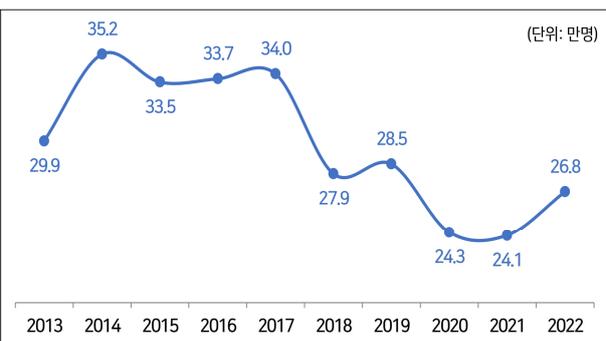
※ 2021년 일반대학 학사학위 취득유예생은 1.9만명으로 2019년(1.3만명) 대비 43.5% 증가(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그림 1. 경기순환국면 도표 >



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 / 자료: 통계청

< 그림 2. 신규 대졸자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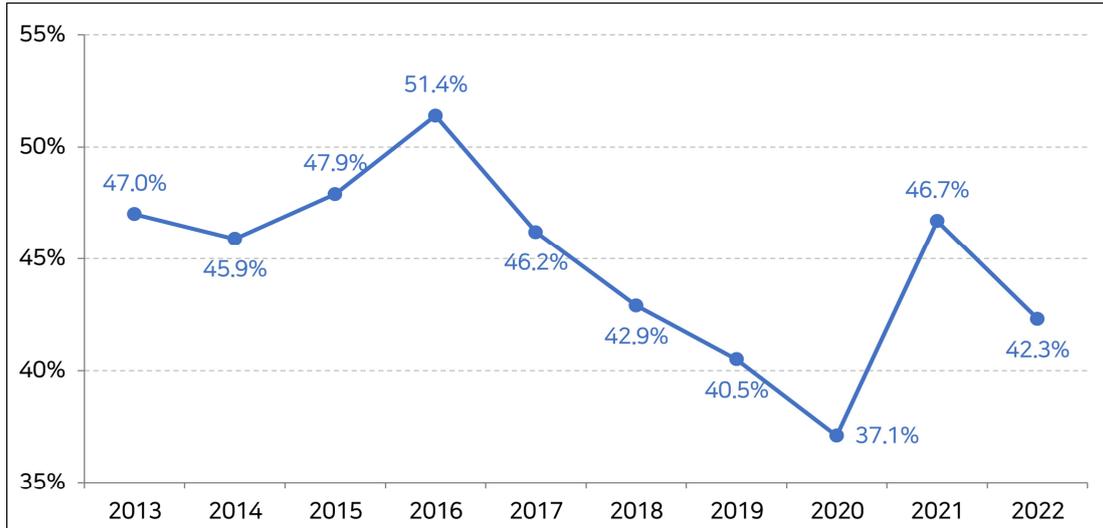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치 기록

-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신규 대졸 취업자 ÷ 신규 대졸자)은 37.1%로 최근 10년(2013~2022) 내 가장 낮은 수치 기록

< 그림 3. 신규 대졸자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21년 신규 대졸자 고용률은 46.7%로 2020년보다 9.6%p 상승했으나, 이는 2020년 대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2021년 신규 대졸 취업자는 11.3만명으로 최근 10년 내 2번째로 낮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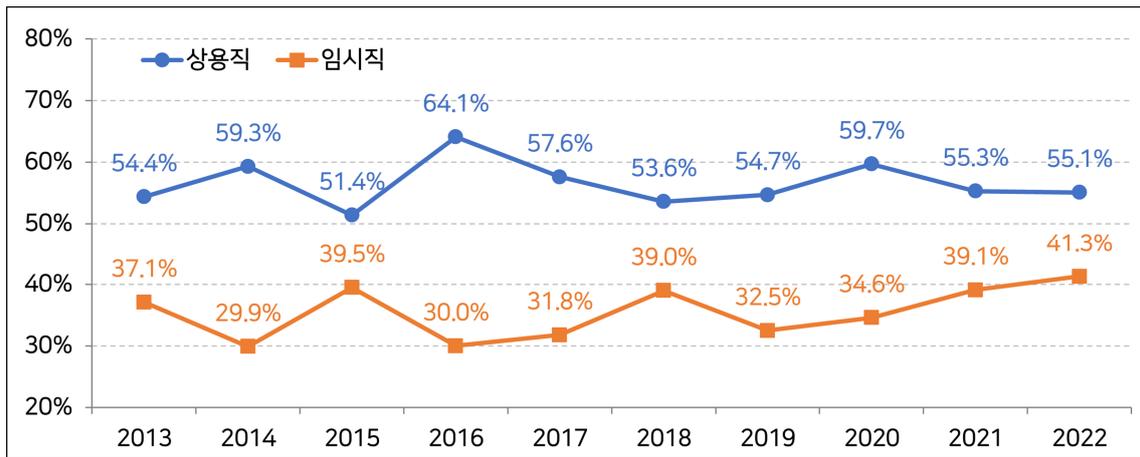
< 표 2. 신규 대졸자 주요 고용지표(취업자 부문) 추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 대졸자(만명)	29.9	35.2	33.5	33.7	34.0	27.9	28.5	24.3	24.1	26.8
신규 대졸 취업자(만명)	14.0	16.2	16.1	17.3	15.7	11.9	11.5	9.0	11.3	11.4
신규 대졸자 고용률(%)	47.0	45.9	47.9	51.4	46.2	42.9	40.5	37.1	46.7	4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신규 대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하락하고 임시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그림 4. 신규 대졸 취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처럼 고용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층은 졸업년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3~4년이 지날 때까지 임금 손실을 보거나 대기업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상흔효과: Scarring effect)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한국은행, 고용 상황 악화가 신규 대졸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 [임금 손실] 졸업 연도의 실업률이 1%p 상승할 경우 1~2년차 연간임금이 4.3% 낮아지고, 3~4년차에도 임금손실률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 [대기업 취업 가능성] 졸업 연도의 실업률이 1%p 상승할 경우 대기업 취업 가능성이 1~2년차에 3.5%p, 3~4년차에 2.3%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한국은행)

다 신규 대졸자 가운데 유휴인력 증가세

-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덮친 2020년 신규 대졸자의 비경제활동률은 41.4%로 최근 10년(2013~2022) 내 가장 높은 수치 기록

⇒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력의 유휴화 문제 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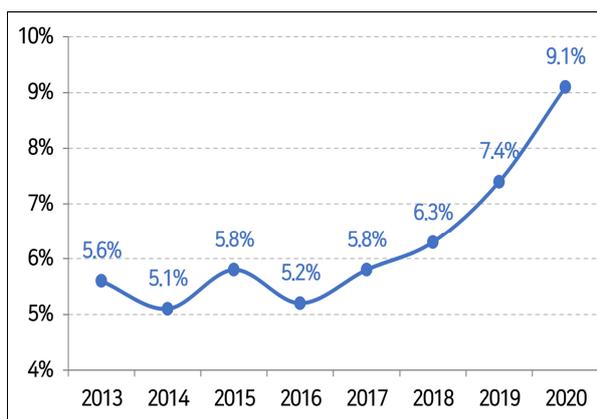
< 표 3. 신규 대졸자 주요 고용지표(비경제활동인구 부문) 추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규 대졸자(만명)	29.9	35.2	33.5	33.7	34.0	27.9	28.5	24.3	24.1	26.8
신규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만명)	8.9	9.8	9.0	10.1	10.1	8.4	10.7	10.1	8.0	10.7
신규 대졸자 비경제활동률(%)	29.7	28.0	27.0	29.9	29.8	30.2	37.4	41.4	33.3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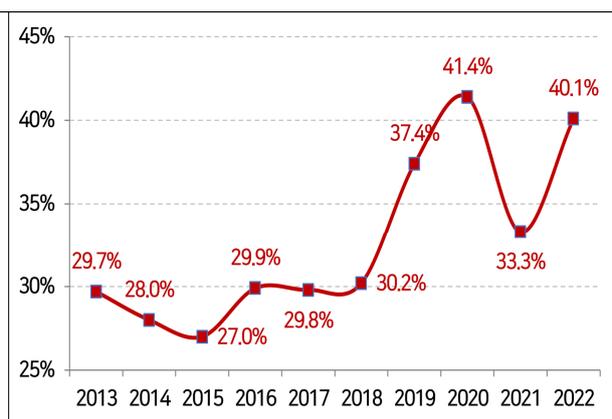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9년 이후 신규 대졸자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현상은 니트(NEET)를 비롯한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추정

< 그림 5. NEET족 비중 추이 >



< 그림 6. 신규 대졸자 비경활률 추이 >



주: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신규 대졸자의 고용 특성)**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대학 졸업자는 다른 연도 졸업생에 비해 큰 고용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지는 상흔효과*를 경험할 우려가 큼. 이와 함께 대졸자 가운데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력 유휴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일수록 저임금 가능성이 커지고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낮아지는 현상

- **(개선방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대졸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코로나19 상흔효과를 최소화해야 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로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야 함.

- ① **(경기 활성화 및 코로나19 상흔효과 최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신규 대졸자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가 상흔효과 등의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간제·파견 제도 개선* 등 원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제도 개편도 필요

* 최대 2년까지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늘리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를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끔 확대해야 함.

- ②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직업 훈련 예산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강화해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해야 함. 또한 최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도 필요

* 삼성전자 SSAFY, SK하이닉스 Hy-five, 포스코 포유드림 등